

Editor's Letter

이병철 Lee Byongchul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한국 비확산원자력저널 편집장

2023년 12월 13일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이른바 '탈화석연료 전환'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합의문은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중요한 시기인 2030년까지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을 가속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그 방식이 질서있고 공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100여개국의 요청으로 애초 합의문에 들어갔던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phase-out) 문구는 결국 빠지긴 했지만 당사국들은 이번에 화석연료에서 '멀어지는 전환'(transitioning away)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합의문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3배로 늘리고 배출가스 저감이 미비한(unabated) 석탄 화력발전의 '단계적 축소'(Phase down)를 가속하는 데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첫술에 배부르랴'는 속담이 생각났습니다. 글로벌 사회의 탈(脫)화석연료 취지에 맞춰 이번 호에 부록으로 COP28 관련 글을 실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원자력과 관련한 다양한 글을 실었습니다. 원전 수출 체계의 개편을 위한 제언, SMR 업계의 동향과 그 정책적 함의를 게재하였으며, 핵 재난 가능성과 그 대처 등 원자력 안전에 관한 글도 준비하였습니다. 농축을

중심으로 한미일 원자력 협력에 대한 제언을 주신 분도 있으며, AUKUS가 극복해야 할 도전 요소와 그 미래를 전망하여 주신 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최근 급격한 발달로 관심을 받고 있는 AI의 규제와 원자력에 관한 논의를 담았습니다.

2023년 한해를 뒤로하고 새로이 맞이하는 2024년은 월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자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입니다. 용은 고래(古來)로부터 가정의 복을 기원하고 모든 재앙에서 가족과 친구를 지켜주는 하늘의 선행과 희망의 존재로 인식됐다고 합니다. 독자 여러분 모두 2024년에도 평안하시고, 푸른 용처럼 대운(大運)을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우리가 다룬 주제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일이 늘어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